

2011년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가나자와를 가다

(2011년 7월 17일 ~ 7월 20일)



오산시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며	4
연수다운 연수, 자랑스러운 연수를 가자!	6
의정칼럼	8
연수개요	10
연수일정	12

2011년 7월 17일

인천에서 가나자와로	16
가나자와 성으로	18
겐로쿠엔으로	21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23

2011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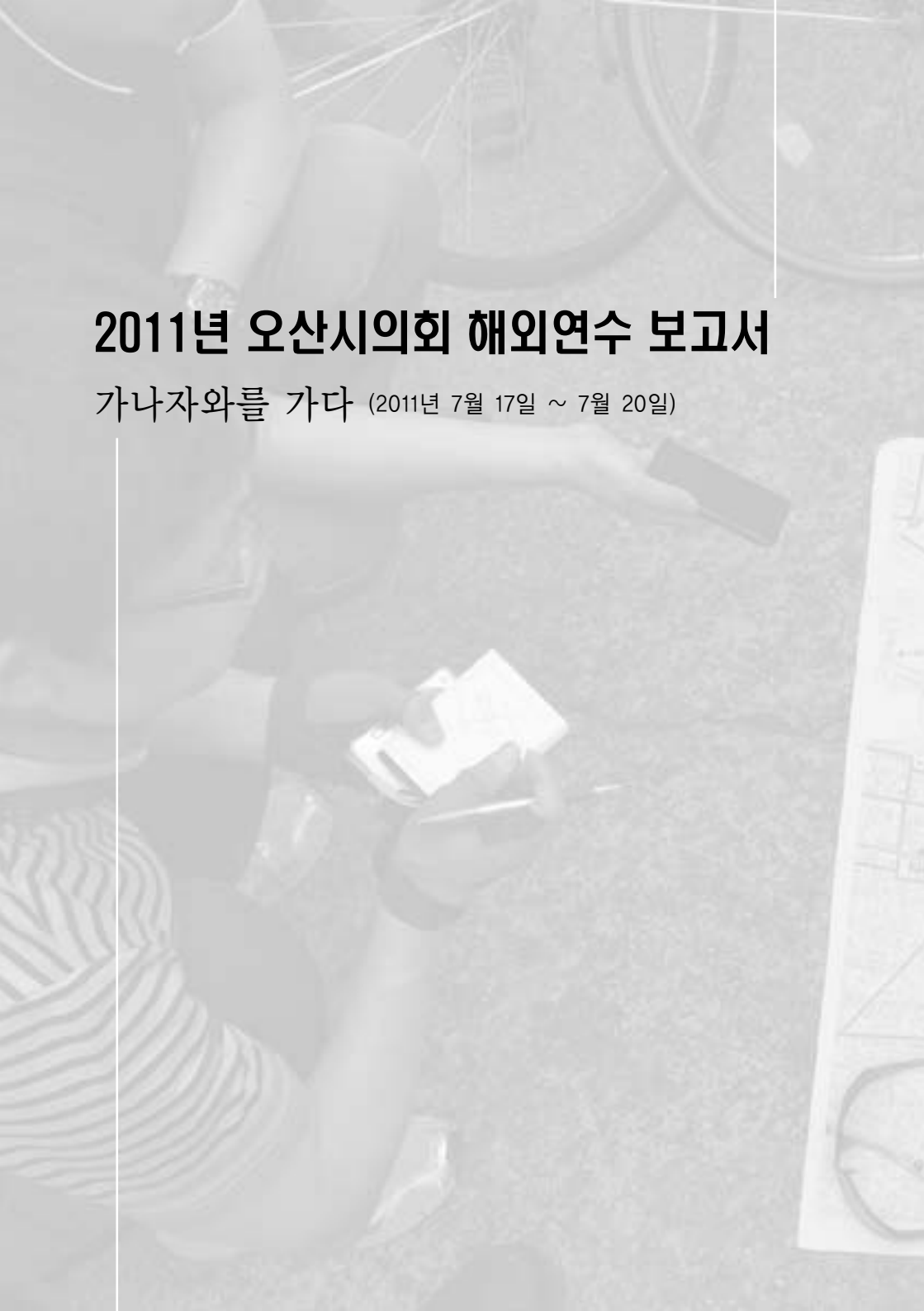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32
일본의 여관에서 점심 식사를	36
유와쿠 창작의 숲으로	37
우타스야마 공예공방	39
아트구미로	40

2011년 7월 19일

오미초 재래시장으로	43
가나자와 시청으로	50
가나자와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51
점심먹으러 가서	57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58
가나자와 장인대학교로	61
가나자와의 마지막 저녁	62

2011년 7월 20일

가나자와의 아침 풍경	64
한국으로	65



2011년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가나자와를 가다 (2011년 7월 17일 ~ 7월 20일)

오산시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며 4
(오산시의원일동)

연수다운 연수, 자랑스러운 연수를 가자! 6
(의장 김진원)

의정칼럼 8
(부의장 최인혜)

연수개요 10

연수일정 12

오산시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며

이 보고서는 2011년 7월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한 의원과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해외연수를 결정했을 때 매년 그렇듯이 효과없고 비용만 드는 연수가 될 것을 걱정한 언론의 질타가 따랐으나 우리는 거침없이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준비했으며 시민이나 언론에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알찬 해외연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사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과 9명의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떠나는 일본 가나자와 연수의 틀이 정해졌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기 전 참가자들은 의원간담회실에 모두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할 김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배경지식을 쌓게 된 것이지요. 모두 진지한 자세로 사전 공부를 하고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스스로 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보고서는 오산이라는 소도시의, 그러나 그 내면의 잠재력은 결코 ‘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오산의 2011년 해외연수 결과물입니다. 공무원의 시각과 의원의 시각으로 본 공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의원연수에 있어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보람있는 연수경험을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책자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자와라는 도시는 많은 지자체가 방문

하는 유명한 곳이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면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입니다.

김진원 의장의 총평을 시작으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한 쪽지씩 맡아 내용을 정리했으며 전체적인 스케치와 편집은 부의장인 최인혜가 하였습니다.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글은 모두 의원들의 글을 종합한 것으로 의원들의 글이 공무원들의 글보다 많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간의 협력의 산물인 셈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타 지자체의 해외연수에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일동



연수다운 연수, 자랑스러운 연수를 가자!



2011. 8. 13 오산시의회 의장 김진원

이번 일본의 가나자와연수를 계획하기 전에 연수를 맡아줄 기관부터 연수의 목적, 그리고 연수의 대상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금까지 오산시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연수가 예산의 제약, 연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관광성외유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의원 스스로가 직접 계획을 세움으로써 여행경비를 줄이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하면, 희망제작소, 향부숙같은 공공교육기관에서 주체별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의회연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듯하다.

연수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연수기관의 프로그램을 받고,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어렵사리 일본의 유네스코 지정 창조도시 가나자와로 결정했다. 연수의 주제는 독창적 문화정책 운영실태, 예술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자전거도로 정책으로 정하였다. 또한 사전에 워크숍을 가짐으로써 연수의 내실을 기하고 오산시의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분야의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수주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갔다. 가나자와에 가서는 60세가 넘는 문화해설사 어르신의 열정에 감동했다. 사람중심의 문화운동을 펼치시는 미쿠니 교수님은 존경스러웠다. 또한, 미술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켜 준 21세기 미술관에 감탄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한다”는 문화재생사업의 롤모델을 보았고, 전통에 혁신을 더한 우타쓰야마 공방을 보면서 오산의 혁신교육프로그램의 아이디어도 얻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작한지 30년이 넘었다는 말에 그 느긋함에 놀라고, “문화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파괴하는 것도 사람이다”라는 가나자와시 공무원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에 대한 책임, 문화를 후대에 남겨준다”는 가나자와 전 시장님의 생각에서 시작된 시민예술촌과 장인대학에서는 가나자와가 왜 유네스코지정 창조도시인지를 알 수 있었다. 현재와 과거의 조화로우름을 만들어 나가고, 그 바탕에 공무원의 열정과 깨어있는 시민의식 등, 적지않은 세월동안 쉽지않게 이루어진 내공이 보인다.

이번 연수는 10년 의원생활동안의 연수 중 걷기도 가장 많이 걸었고, 현지식만 먹어본 첫 번째 연수였으며, 자전거를 타 본 유일한 연수였다. 첫 날부터의 강행군 탓, 그리고 무리한 일정에 많이 힘들었지만, 불평과 불만 없이 함께 해주신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미정, 손정환, 최웅수 의원님께 감사한다. 아울러, 연수준비에 애쓰신 이수영 과장님과 의회식구들도 고맙고, 주제별 현장방문과 토론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던 홍휘표 담당관을 비롯한 연수참여 공무원의 모습에 진심어린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김준호 교수님과 이정용박사님 그리고 미쿠니교수님과 나가하라상도 잊지 않겠습니다. 강형기교수님 연수갔다와서 다시 한 번의 되새김. “화룡점정” 부탁드립니다.

의정칼럼



최인혜 오산시부의장(민·비례)

의원님들! 주저하는 마음 들면 떠나지 말라

2011년 04월 26일 (화) 전자신문 | 1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최근 각 신문들이 연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행태가 변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목적이 불분명한 의미없는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 선진 사례를 배우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라! 당연히 맞는 말이다.

나는 얼마 전 전국의 지방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에서 ‘해외연수와 의정활동’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연수보고서를 찾아보았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희귀했다. 몇몇 도시의 홈페이지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공무원이나 여행사 직원이 작성해 준 것이 분명한 보고서였다. 여행사이트에서 표절해 붙여 놓은 해외도시 소개와 마지못해 보충한 듯한 의원들의 소감 서너줄. 그나마 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 베껴 온 듯 아주 똑같은 형식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의원 자신이 보고 배우고 체화한 것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재산은 밖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쌓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돈이 없어도 보험하나 들어놓고 열심히 여행한다. 그래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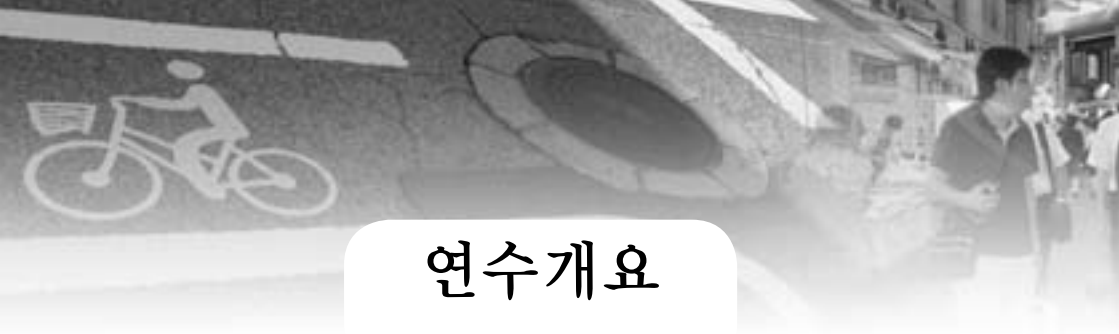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듣거나 보면 항상 할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오토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스위스인들의 질서정연한 오토캠핑모습이 떠오르는 식이다. 나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도시가 그려진다. 나를 위해 ‘쓴 것’이 재산이 됐기 때문이다. 보는 것 만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보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공부를 한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공부를 하고, 돌아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쌓이는 색다른 경험과 아이디어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행이 끝나면 기행문 책자를 찍어 지인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왔다. 이런 과거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의원은 반드시 세계를 배우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책과 더불어 선진지 견학도 필수이다. 거기엔 재래시장을 포함한 관광일정도 반드시 끼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수천년 동안 이용한 뒷골목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해당 방문기관만 잠깐 들러 통역을 통해 뭔가를 듣는 것은 해외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시(市)의 어려운 재정 때문이 아니라 여론의 못매가 두려워서 해외연수를 주저한다면 가지 말아야 한다. 해외연수는 내가 사는 도시의 삶의 질을 올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돼야지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외유’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녀와서 해외연수의 결과를 테마별로 발표하는 공청회를 여는 것은 어떨까? 잘하면 시민들이 또 가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연수개요

1. 연수목적

유네스코에서 창조도시로 지정한 가나자와시의 문화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확인과 현지 실사를 통한 체험 실시

2. 연수기간 및 내용

◎ 연수 기간

2011. 7. 17(일) ~ 7. 20(수) (3박 4일)

◎ 연수 내용

- ◇ 예술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 ◇ 시민예술촌 등 독창적 문화정책
- ◇ 자전거 활성화 정책



3. 연수명단

번호	이름	소속	비고
1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	
2	최인혜	오산시의회 부의장	
3	김미정	오산시의회 의원	
4	손정환	오산시의회 의원	
5	최용수	오산시의회 의원	
6	이수영	의회사무과 과장	
7	강선규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8	심기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9	최현실	의회사무과 직원	
10	홍휘표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11	이종수	오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12	박영춘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리담당	
13	서정욱	오산시 지역경제과 고용정책담당	
14	강동희	오산시 건설과 자전거도로(담당)	
15	김준호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16	이경용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원	

연수일정

◎ 2011. 7. 17 (일)

시간	내용	비고
09:05~10:50	인천(출발) - 고마츠공항 도착	KE775
11:50~12:30	가나자와 시내로 이동	
12:40~13:40	점심식사	
13:40~15:30	일본 전통공원(겐로쿠엔) 및 가나자와성 견학	
15:30~16:00	호텔이동 및 체크인	가나자와 뉴 그랜드호텔
16:00~18:00	자전거도로정책-자전거를 타고 시가지정비 사례 및 경관 시찰	
18:00~18:50	저녁식사	
19:00~22:00	세미나 : 가나자와시의 자전거정책과 시민과의 협동 추 진에 관하여	

◎ 2011. 7. 18 (월)

시간	내용	비고
08:30	호텔로비 집합	
08:40~09:00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이동	
09:00~11:00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견학 및 설명회	
11:00~11:30	유와쿠 창작의 숲으로 이동	
11:30~13:00	점심식사	
13:00~15:00	유와쿠 창작의 숲 설명회, 유와쿠 창작의 숲 견학 및 체험	
15:00~15:30	우다쓰야마 공예공방으로 이동	
15:30~16:30	전통문화산업육성 사례(공예공방)시찰	
16:30~17:15	아트구미 설명회	
17:15~17:35	호텔로 이동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가나자와 야간경관시찰 및 숙박	



◎ 2011. 7. 19 (화)

시간	내용	비고
09:00	호텔로비 집합	
09:00~09:15	재래시장으로 이동	
09:15~10:45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오미초시장관) 설명회 및 시장견학	
10:45~11:15	가나자와 시청으로 이동	
11:15~11:30	가나자와 의회 의장 접견	의회회의실
11:30~12:00	가나자와 의회 의원 간담회 및 의회시찰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가나자와의 지역활성화정책 설명회 가나자와 마을만들기 시민기구 및 학생의 마을 설명회	가나자와 시청
15:00~15:30	시민예술촌으로 이동	
15:30~17:00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 설명회,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 견학	
17:00~21:00	호텔로 이동- 휴식, 저녁식사	

◎ 2011. 7. 20 (수)

시간	내용	비고
09:20	체크아웃 및 호텔로비 집합	
09:30~10:30	고마즈공항으로 이동	
12:00~14:00	고마즈 출발 - 인천공항 도착	KE776

2011년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가나자와를 가다 (2011년 7월 17일 ~ 7월 20일)

2011년 7월 17일

인천에서 가나자와로	16
가나자와 성으로	18
겐로쿠엔으로	21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23

2011년 7월 18일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32
일본의 여관에서 점심 식사를	36
유와쿠 창작의 숲으로	37
우타스야마 공예공방	39
아트구미로	40

2011년 7월 19일

오미초 재래시장으로	43
가나자와 시청으로	50
가나자와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51
점심먹으러 가서	57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58
가나자와 장인대학교로	61
가나자와의 마지막 저녁	62

2011년 7월 20일

가나자와의 아침 풍경	64
한국으로	65

인천에서 가나자와로

시청버스 한 대가 시청 중앙현관에 서있다. 연수에 동행하지 않는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공항으로 향한다. 통역을 맡아주시는 분은 일본에서 십수년 유학했으며 지금은 한국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김준호 교수이다. 이미 이 분에게 가나자와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우리는 단순한 일본어 통역이 아닌 박학다식한 교수님을 모시고 연수를 가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리 강선규 의정계장님! 웬 두껍고 귀여운 노트를 잔뜩 꺼내어 하나씩 건네주시며 이번 연수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 뽐뽐하게 적어야 한다고 위협(?)하신다. 그러니까 놀러가는 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시는 것이다.



인천에서 일본은 쑹~하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이다. 고마츠 공항에 10시 50분에 도착하자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진 나가하라상이 나와 있다. 이 분은 시민운동가인데 일본말이 무척 빠르다. 고마츠공항에 내리자 어찌나 뜨거운지 땀이 줄줄 난다. 나가하라상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날씨가 덥지만 우리 모두가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또 열정을 가진 우리를 자기들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가나자와시의 문화에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살아있다. 16세기 말 전국시대에 형성된 도시답게 가나자와성, 일본의 3대 정원 중의 하나인 겐로쿠엔이 있다. 가나자와시를 통치하였던 쇼군 ‘마에다’가문이 에도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군사력을 키우지 않으며 오직 문화에 힘을 쏟겠다’고 천명한 것이 전쟁의 피해를 벗어나게 했고 그들만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나자와는 사무라이 귀족이 살던 전통 가옥의 거리, 게이샤의 거리, 오미초 전통시장 등 역사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의 보존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전통기술인 도자기, 염색, 칠기, 금박공예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현대미술, 음악을 가미하여 그들만의 창조도시를 만든 결과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창조도시가 된 것이다 (박영춘 주무관).

단순히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가나자와시의 발전모델은 내발적 발전의 전형이며, 그 기법상으로 본다면 창조도시의 모델이기도 하다 (의회사무과장 이수영).⁰¹

가나자와시는 연구개발을 갖춘 중소기업은 많아도 대기업은 없다. 지역의 풍토와 장인정신에 토대를 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에 힘썼고 전통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시켰다. 그 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가

01 이수영 의회사무과장은 매우 똑똑한 공무원이다. 독서량도 많고 생각이 올바르며 충언도 서슴지 않는데 듣기 싫은 말도 거슬리지 않게 말하는 방법은 누구나 배워야 한다.

순환되도록 하여 자립성 높은 도시경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수영).

가나자와라는 지명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모호리토 고로(芋掘藤五郎)라는 사람이 사금(砂金)을 씻었던 습지를 ‘가네아라이사와(金洗沢)’라고 불렀다는 설이고, 현재의 가나자와성, 겐로쿠엔 일대가 가나자와고(金沢郷) 혹은 가나자와노쇼(金沢荘)라고 불리웠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인구는 약 45만이며 면적은 467.77km²이니 오산시의 약 11배가 된다. 시의회의원은 40명이며 공무원은 3190명이다. 재정규모는 3,123억 8,961만 7천엔(4조 2,650억 5,544만원)이다. 주요산업으로는 금박공예가 있는데 일본 전국의 98%를 차지한다. 또한 은박공예, 도자기, 염색, 칠기 등 전통공예산업과 직물, 간장, 술 등 재래산업이 매우 발달했다 (심기택 전문위원).

이 곳은 교토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다. 그 당시 마에다라는 지배자는 매우 피가 있었는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꼬리를 꽂 내리고(?) 우리는 힘을 키우지 않고 그저 문화예술만 하겠다고 했다한다.

가나자와 성으로

어찌나 날씨가 뜨거운지 땀이 줄줄 나는데 우리는 가나자와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생선과 적은 양의 채소가 곁들여진 전통적인 일본 현지식 식사였는데 참으로 재미있었던 점은 우리 젊디 젊은 김진원 의장님 혼자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입맛만 쭙쭙 다시고 있었던 점이다. 현지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추장을 싸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일본에 있던 내내 현지식만 제공되



였으니 그 고통이 컸으리라…… 그래도 그렇지 전국 최연소 의장이 인도도 아니고 일본에서 식사를 못하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 ⁰²

의장님만 빼고 우리 모두는 탈없이 식사를 하고 가자자와성으로 들어간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이는 자원봉사 안내원인 다케노라는 노인이다. 연세가 70세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날씨에 지치지도 않고 자기 사는 고장의 문화유적을 설명해주시는데 진짜 감동은 바로 그 분이였다.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교수보다도 훨씬 박식한 해설사⁰³들이 감동을



〈해설사 다케노상과 나가하라상〉

주는데 바로 이 분이 그런 분이였다. 게다가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다니 어찌 감격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선진국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가나자와성은 1583년, ⁰⁴ 약 9만 평의 땅에 지어졌다. 이곳은 당시

- 02 부지런한 이수영 과장님은 국내고 국외고 연수를 가면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일어나 주변 산책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신다. 우리 의장님은 아무리 현지식이 싫고, 지난밤 술을 먹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과장님의 등쌀에 일어나야 한다. 과장님은 의장님을 깨워 식당의자에 앉혀놓고 무조건 먹으라고 명령한다. “드세요!” 안 먹으면 다시 “드세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꼼짝 못하고 아침식사를 하신다. 모든 의사과장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03 우리 오산시에도 작년에 배출된 해설사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 왕성히 활동하며 방문객들의 칭찬을 듣고 있다. 오산시 문화원에도 박수를 보낸다.
- 04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이니 자기들의 문화는 아끼고 우리 문화는 파괴했다는 생각이 스친다.

지배자였던 마에다 가문의 대저택이다. 이곳에서 마에다의 자손이 14대 285년에 걸쳐 살았다고 한다. 여러 번의 대화재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1788년⁰⁵ 건축한 가나자와성의 후문인 이사카와몬(石川門)만이 무사히 남아 국가의 주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복원을 위해 성내에 있던 각종 공공시설들을 이전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심기택 전문위원).⁰⁶

7월 한더위에 마치 함박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건물의 지붕은 납이 많이 함유된 기와를 사용한 것인데 당시 방화용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방탄기능을 수행하기 위함⁰⁷이었다고 한다. 이런 기와는 나마리 기와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기와를 가진 성은 지금 두 군데라고 한다. 그때는 대포를 쏘도 깨지지 않는 기와였으며 스페인에서 이 기술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신발을 벗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한 마룻바닥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의 목조축조공법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대들보와 기둥을 짜 맞춰 건물 내부를 만들었다.



05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을 생각하면 감을 잡기 쉽겠다.

06 심기택 전문위원은 공무원이라기 보다 매우 샤프하게 생긴 대기업 사원같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07 방탄 기능은 '땀겨나 말겨나'라는 현지 해설사의 설명이다.

가나자와성을 둘러보고 우리는 바로 옆의 정원, 겐로쿠엔으로 간다.

겐로쿠엔으로

겐로쿠엔은 1676년 5대 영주 마에다 쓰나로리가 성안에 정자를 짓고 주위에 정원을 조성한 것을 시초로 하여 제 13대 영주 나리야스가 연못 조성 등 기본구조를 갖춰 만든 정원이다.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임천회유식(林泉廻遊式) 정원이다. 약 3만여평에 183종의 수목이 있다고 한다. 보통 3~400년된 나무가 많으며 수명이 다한 고목은 종자를 받아 다시 심어 맥을 잇는다고 하니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나자와답다. 겐로쿠엔은 1985년에 특별명승지로 승격 지정되었다. ‘겐로쿠엔’이라는 이름은 이 정원의 6가지 특징, 광대함, 한적함, 인공미, 고색창연함, 풍부한 물, 아름다운 조망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심기택).



〈겐로쿠엔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는 겐로쿠엔의 입구로 들어가다 우리 해설사보다 훨씬 나이가 든 할아버지 해설사를 만났는데 그 역시 한 때의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의 다케노 해설사 왈, 가나자와 해설사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0세가 넘었다고 하는데 현역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먹을수록 드는 생각은 사람을 나이먹게 만드는 것은 결국 ‘생각’이며, 그 생각이 젊은 한, 사람은 절대 나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겐로쿠엔 입구로부터는 오밀조밀한 가게들이 좌악 늘어서 있다. 왕이 승마훈련을 하던 길도 반듯하게 남아있다. 에도시대에 왕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못 들어왔으며 명치시대 후 개방하게 되었는데 아무거나 신고 들어올 수도 없고 오직 조리를 신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오밀조밀한 가게들은 대부분이 찻집이다. 찻집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현재 12개가 남아있는데 생업을 이을 자식들이 없어 걱정이란다고 한다.

정원, 즉 공원 내에는 에도시대 말기 (1850년경)에 만들어진 일본 최고(最古)의 분수가 있어 높이 3.5미터까지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다. 분수의 동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공원 정상부의 연못을 수원으로 하며 높이 차에 의한 수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다고 한다. 정원은 매우 넓

지만 모든 곳이 아기자기 정이 가게 꾸며져 있다. 우리는 무척 더웠지만 연로하신 해설사가 지치지도 않고 설명해주시니 피곤한 내색도 보이지 못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어느 공무원의 독백이 무척 내공있게 들렸으니 그는 문화공보실의 박영춘 주무관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워낙 박학다식하여 모두들 ‘박박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역시~



〈박영춘주무관〉

해설사 할아버지는 이 곳이 봄에는 각종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우며 겨울에는 나무를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산살 형태의 ‘유키즈리’⁰⁸가 정취있는 풍경을 연출하는데 유키즈리에 쌓여있는 눈의 아름다운 겨울 가나자와 시의 대표적인 풍물이 될 정도로 독특하다고 열심히 설명하신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새벽부터 일어나 일본에 와서 겐로쿠엔까지 돌고 나니 피곤하고 땀에 절었으나 우리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30분도 안되어 다시 로비에 모였다.⁰⁹ 전철역 1층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내를 투어하며 자전거도로 정책을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이는 시민운동가로

08 호쿠리쿠 지역의 눈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쌓인 눈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한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겐로쿠엔의 귀하신 나무들의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매년 11월 경부터 나뭇가지 하나하나마다 정성들여 유키즈리를 설치하고 있다. 고목의 우아한 자태와 기하학 모양의 유키즈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PHRKORWEA-daum 블로그에서 인용)

09 가끔 짐을 풀지 않고 차에 싣고 다니며 일정소화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호텔에 들러 여장을 풀고 시작하는게 훨씬 낫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미쿠니 교수의 부인이다. 저렇게 작고 여린 여자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어찌나 능숙하게 타며 안내를 하는지 놀라웠다. 그리고 그녀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관심 또한 감동이었다.

사실 오산시 자전거정책 담당자인 강동희 주무관에 의하면 고마츠 공항에 도착하여 가나자와시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밖으로 보이는 교통시설물, 특히 자전거 도로 시설물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녁에 열린 세미나¹⁰를 통해 가나자와시의 자전거도로 정책은 [사람중심의 공공시스템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단체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수준높은 시민을 육성함에 중점을 두며, 그러한 ‘미미한’ 시설물들이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의 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고 자전거도로 담당자로서 부러울 따름이라고 회고하였다.



〈강동희 주무관〉

우리는 가나자와 전철역에 줄지어 서있는 자전거들중 하나를 집어타고 헬멧을 걸치고 자전거 시내투어를 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보는 여성의원들은 뻘뻘갈 수 밖에 없었는데 뒤따라 오던 김미정

10 자전거로 시내투어를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자전거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하였다.

의원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ㅎㅎ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쉽지 않았다. 자전거 운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길이 좁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 가나자와의 뒷골목들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어울려 있는 매우 경쟁력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마치 스위스의 빙하물이 쿵쿵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용수로의 풍부한 물은 인상적이었다. 그 용수로 옆으로 늘어서 있는 아담한 주택들이 예뻐다. 가끔씩 보이는 유럽풍의 카페 또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다. 저렇게 작은 카



페를 운영하며 과연 얼마의 돈을 벌겠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아날로그식 문화는 바로 저런 카페다. 욕심없는 사람들이 소박한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보통 시민들은 갈 곳이 없다. 주택가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사람사는 냄새를 풍겨주는 가나자와는 또 찾아보고 싶은 도시다. 자전거가 들어간 뒷골목에는 아주 오래된 기와집들이 있었다. 저런 고옥들은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다. 뒷골목에는 예상외로 관광객들이 많았다. 그냥 걸으며 그 고즈넉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관광인 것이다.

골목마다 양반가옥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의 집이 추위를 막기 위해 지어진 집이라면 일본은 여름을 막기 위해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장치들이 많다고 한다. 가나자와에는 깨끗한 길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도 있다고 한다. 그런 가옥에 살던 사람들이 나이들어 빈 집이 되면 시가 사거나 빌린다.



가나자와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이 10m당 약 100만엔(1,365만원)이 소요되는 비경제성으로 현실성이 떨어짐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도로를 사용하는 공존도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돌요소를 줄이기 위해 차량속도, 통행량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선정하고 있고 자전거 운행시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내 설치물 (가로수, 교통시설물 등)의 제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심기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9년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된 후 국가보조사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 7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되고 2005년부터 자전거도로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급격히 줄기 시작했으나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녹색교통인 자전거와 보행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기택). 아직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다른 현안보다 예산반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형성과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투자에 매우 소극적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



〈손정환, 김미정의원 - 가나자와 뒷골목에서〉

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심기택).¹¹

가나자와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많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1976년부터 11년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410km를 개설하고 2000년부터는 가나자와의 ‘자전거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했다 (심기택).

시민단체 설립과정을 보면, 1997년 독일 Freiburg¹²를 방문한 일본 국립대 교수 미쿠니는 독일의 Freiburg를 가나자와시 교통시스템의 롤모델로 삼고 [지구친구 가나자와] 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2000년 미쿠니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는 가나자와의 교통과 환경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스위스¹³ 교통그룹 대표를 초청해서 가나자와시를 둘러보게 한 결과, “가나자와는 자전거가 전혀 달릴 수 없는 도시이군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고 자동차중심의 교통설계가 이루어지는 가나자와를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한다. 가나자와 고등학생들은 90%가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데 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룹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초자료(지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2006년까지 4번에 걸쳐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강동희).

11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너무 전시장 사업에 치중해 자전거도로 건설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두는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Freiburg는 전쟁전의 기록 및 사진과 지도로 도시를 재건하였고 1976-1987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여 11년간 410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은 29%까지 증가하였다 (강동희).

13 스위스의 쾰리히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중간에 개설되어 있다. 차와 자전거가 함께 쫓쫓 달리는데 보기에 여간 위험하지 않다. 스위스를 여행할 때 한번은 쾰리히 시내 도로에서 우리 차를 들이 받은 자전거가 있었다. 내려서 흠이 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내뺐는 경우를 보았다. 어쨌든 스위스가 자전거도로 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인가 보다. 가나자와에 와서 한 수 가르쳐주는 걸 보니……

▶ 가나자와 자전거 지도 제작 및 도로개선 과정



〈표1 : 강동희〉

시민단체에서 기초지도를 배부할 때는 초·중·고등학생 각 1명당 지도 1개씩 나누어 주어 지도에 자전거 위험구간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잘 타지 않는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지도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지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정리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녀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인식 시키게 하기 위해서 (강동희) 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시민위주의 정책을 펴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¹⁴

14 나중에 예결산심의를 하다보니 오산시에도 '아동지도제작'(사회복지과)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다.

▶ 지도제작의 결과



처음 지도를 제작할 때는 지역의 기업들을 스폰서로 삼았다. 지도인쇄비가 없을 때는 지도인쇄소와 협의하여 지도를 먼저 제작하고 판매 한 후 수익을 얻었다. 이런 현황을 국토교통성의 관련 공무원이 보고 건의 하여 이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번에 걸쳐 구역별 지도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게 되었다 (강동희).

▶ 교통교육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좌측 통행 등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지 도덕적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즉 일본 문공성에서 교육시간을 지정하고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데이터에 기초한 근거를 가지고



왜 좌측 통행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학생들이 납득 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교육하였기 때문이다 (강동희).

100만엔(1,365만원)/10m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비 등 도로건설 분야는 가나자와시 예산의 20%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연 이 예산대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한데 시민단체등과 함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한다 (강동희).

가나자와의 자전거도로 정책 중 특이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하고자 타지역의 통과차량은 시내 일부도로를 일정한 시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역민 확인카드를 발급한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과연 협조해 줄 대한민국 시민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차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인도(人道)를 다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정도로 아주 드물다고 한다.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만큼 자전거에 의한 보행환경의 침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심기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자와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 스스로 자전거지도를 작성하고 위험지역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형태로써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행정기관은 그것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거버넌스(協治)가 형성되어 있다 (심기택).

이것은 한편 진정한 혁신교육이다. 의견수렴과정, 지도제작과정 등이 모두 서양식 그룹 프로젝트인 것이다.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협동을 배우고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배운다. 이게 바로 혁신교육 아니겠는가? 혁신교육도시인 오산시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동차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자전거와 연동보험 적용, 세금감면)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함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도로 다이어트, 보도 확장 등) 현실적인 정책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연계를 통해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택). 또한 우리 오산시에서도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자전거정책을 거울삼아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에 따른 시의 지원과 열린 시정은 필수이다. 이는 오산시가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를 분명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강동희).¹⁵

15 자전거도로 담당 강동희주무관이 오산시가 부여한 숙제를 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바 그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전거 복장부터 필기하는 모습, 필요한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 질문하는 모습에서도 진지함이 묻어났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가나자와는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이다. 1583년에 마에다가 지배를 시작한 이래 통치자들이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켰다. 이런 마을에서 왜 새로운 현대식 미술관을 만들게 되었는가?

일반적 견해로는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도시 중심 한복판에 커다란 현대미술관이라니 맞지 않는 설정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창조없는 전통보존은 퇴보’라는 믿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21세기 미술관을 짓게 되었다 (박영춘).

미술관이 지어진 역사를 보자. 1994년에 도심에 위치한 가나자와대학 부속 유치, 초.중등학교가 이전하게 되었다 한다. 그들이 떠나자 남겨진 부지에 야마데 타모츠 시장은 21세기 미술관을 구상했다. 이럴 때 지도자의 리더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야마데 타모츠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 포럼을 열고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했다고 한다. 매년 15-20여점의 작품을 수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전시하는 등, 주도면밀한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미술관이나 미술관활동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어 오늘날의 미술관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심기택).

이시카와현 미술관도 근처에 있으나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은 그 곳과는 컨셉트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은 1980년 이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작품을 전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별칭은 마루비 (둥근 미술관)이다. 건물의 모습이 둥근 모습이다. 200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에 준공했다. 세지마 가즈요라는 여성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즈커’상¹⁶을 수상했다. 건물을 보러 관광객이 모여들 정도이다. 건축의 컨셉트는 ‘열린 공원같은 미술관’이라고 한다. 시민 누구나 언제나 쉽게 찾아와 만남의 장이 되도록 열린 공간을 만든 것이다.¹⁷

외관이 원형의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고 건물내부의 벽면도 유리를 사용하여 투명함과 밝음, 개방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내, 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미술관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형태가 정 원형이라 정면이 따로 없고 서있는 곳이 정면이 되는 재미있는 구조물이다.



이곳은 우리같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때문인지 미술관을 설명하는 이도 매우 숙달된 조교같았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곳의 성공요인으로

16 프리즈커 건축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즈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즈커 가문이 운영하는 이 상은, 현재 세계 최고의 건축상이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주어진다.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또한 요건이 된다. 수상자는 100,000 미국 달러를 받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건축계에서의 명성과 이후에 건축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프리즈커상은 때때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17 오산의 첫 번째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우리 객상옥 시장님의 목표도 ‘열린 공원같은 미술관’과 같다.



전통적인 거리에 현대건물이 입지한 ‘조화성’, 도시 중심에 입지한 ‘중심성’,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다양성’에 있다고 설명한다.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의 졸업전을 매년 개최하는 등, 전통이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서 그 적응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실험의 장소이다. 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래문화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아이들이 고유문화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소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무료초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즈 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예술품감상은 물론 시민들 간 교감의 장소로도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심기택).

이곳은 14개의 전시관이 있다. 전시관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 공간소화가 관건인데 여기서 예술가의 역량이 돋보인다고 한다. 연간 입장객이 150만명을 넘는다고 하니¹⁸ 오산의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21세기 미술관은 철저한 민간단체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예술창조재단’이 그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문화재단¹⁹이다. 재단에

18 작년 황금연휴에는 2만명이 넘게 모였다고 한다.

19 이들은 거의 모든 문화예술관련 운영을 예술창조재단에 맡기는 모양이다. 문화재단의 설립을 앞두고 의견대립이 팽팽한 오산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재단이 부럽다.

서 파견근무하는 사람들이 36명이다. 학예과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았는데 기획전시, 수집보존, 초등대상 교육 등을 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류과에는 150명이 들어가는 콘서트 홀이 있으며 음악, 영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미술관의 올해 예산은 2010년 현재 7억 5천만엔(102억 3,900만원)인데 전람회 경비 2억 3천만엔(31억 4천만원), 인건비 2억 2천만엔(30억 366만원), 운영비 3억엔(40억 9,590만원) 등이다. 시의 보조가 4억 2천만엔(57억 3,426만원)이라고 한다.

미술관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홍보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도 성공의 요인인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 날도 덴마크의 옛벤하인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학예원이 직접 해외에 나가 작가를 섭외했다고 한다.²⁰ 우리는 7월에 방문했는데 그 날의 전시를 위해 그들은 4월부터 홍보를 시작했다. 1개월 전에는 지역 상점가나 호텔, 관광안내소등에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책자를 돌렸다. 시외는 시외의 미술관과 연결하여 홍보하고 매스컴에 기사화했다. 이는 평범한 홍보이나 늘 홍보가 부족하여 유명하고 훌륭한 음악가등의 연주에 항상 관객이 없어 얼굴을 들 수 없는 오산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코드를 지향하고 있는 작금의 오산은 변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곽상욱 시장님도 그 열정이 가나자와시장에 못지않다. 몇 달 후 개관할 오산의 미술관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만은 세계적인이다. 예술과 교육이 함께 일어나는 전국최초의 알찬 미술관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 미술관은 ‘학교 밖 학교’로서 양질의 창의교육을 원하는 주변의 인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왜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하는가? 이제 오산으로 오라!

20 물론 이런 정도야 어느 미술관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날, 21세기 미술관에서 열리는 덴마크 작가의 전시를 보고 오는 행운도 있었다. 여러 가지로 알찬 연수이다.

일본의 여관에서 점심 식사를

21세기 미술관에서 나와 우리는 일본의 전통여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깔끔하고 아늑한 여관은 보통 호텔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법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서비스 수준이 말 그대로 수준급이기 때문이



다. 작은 반상들이 사람 수대로 놓여있다. 우리는 한 사람씩 그 앞에 앉는다. 여관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서빙을 한다. 미안해서 못 먹을 지경이다. 음~ 음식맛은 매우 담백하고 맛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식재료들이 다 그 지방 특산물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

점심을 먹고 이 방 저 방 둘러보았는데 대부분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다. 방 밖에는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세면대와 콘솔이 놓여져 있다. 밖으로는 다시 고즈넉한 일본 동네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버스를





〈한적한 여관 밖 길을 걷고있는 서정옥 계장의 뒷모습〉



〈나가하라상, 김준호 교수, 최인혜 의원〉

기다리는 정류장 앞에 작은 벤치가 있다. 그 곳엔 노천온천이 있다. 따끈한 물이 소 여물통 같은 곳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양말을 벗고 따뜻한 노천온천물에 발을 담근다.

유와쿠 창작의 숲으로

유와쿠 창작의 숲은 말 그대로 창작이 일어나는 숲이다. 1300년 전에 개발된 유와쿠 온천지구가 있어 70년대까지 휴양지로서 활성화된 곳이었으나 쇠퇴 후 단푸엔이라는 전통가옥 전시장으로 운영된 곳이라 한다. 그러나 그 테마공원이 운영에 실패하고, 2003년 예술창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운영은 역시 예술창조재단이 맡아 하고 있다.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한다’라는 야마테 전 시장의 구상으로 7개의 고가옥을 이전하여 공방으로 사용중이다 (심기택).²¹ 14억엔(191억 1,42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었으므로 새 건물을 짓는 것 보다 더 들었으나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지금의 창작의 숲을 만들게 했

21 사업비의 대부분이 고가옥의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고 한다. 1년에 26,000명 정도가 이용하며 이들 중 5%는 숙박객이다.

공방에는 체험관광팀이 다수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장기체험 (8일간 숙박)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창작의 숲은 공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드넓은 숲을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아주 무서운(?) 그네도 있었는데 그 길고 높은 그네를 타는 김미정 의원은 겁이 없어 보였다.^^



〈용감한 김미정 의원〉

우리는 팀을 나누어 여러 가지 창작시간을 경험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가 참가한 체험프로그램은 하얀 손수건을 끈으로 묶어 염료에 담가 무늬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 간단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도구나 기구들이 참으로 ‘성의있어’ 보였다. 모든 염려는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라 한다. 그들은 진짜 그런 염료를 만들기 위한 식물들을 숲에 키우고 있었다.



〈똑똑한 심기택 전문위원〉



〈맨 오른쪽 앞줄 : 김준호교수〉

우리를 가르친 선생은 매우 젊은 청년이었다.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면 참 재미있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 창작의 숲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 1년 운영비가 6000만엔(8억 1,918만원)이며 그 예산의 60-70%를 시에서 보조하니 미술관이나 이런 창작공간이나 모두가 ‘돈 먹는 하마’임에는 틀림없다. ‘돈먹는 하마’를 이렇게 키우는 일본은 대단하다, 가나자와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우타쓰야마 공예공방으로 향했다.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우타쓰야마 공예공방²²은 1989년 11월 가나자와 시제 100주년 기념으로 개설하였다고 한다. 시제 100주년기념으로 공예공방을 개설하는 가나자와는 역시 문화도시이다.



이 곳 역시 예술창조재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우타쓰야마 공예공방의 철학과 활동내용을 보면 첫 번째, To produce (육성한다): 공예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시설이 있으며 젊은 공예가들을 길러낸다. 두번째 To exhibit (보여준다): 당연히 그들의 공예작품을 전시한다. 셋째, To participate (참가한다): 공예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시민들을 참가시킨다. 연수는 2년이며 지금 31명이

22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예술관련 장소이다. 똑같은 개념의 비슷한 장소를 보니 슬슬 지쳐오기도 한다. 가나자와라는 도시의 특성이 그러니 연수프로그램도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연수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의 견학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수련중이다. 이들은 전통공예뿐 아니라 ‘겸예’라 하여 ‘예’를 함께 교육한다. 예를 들면 다도나, 꽃꽂이 등을 가르치며 다도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마추어는 들어올 수 없고 전문기술을 가진 자 중 작품을 보고 선발하는데 6-10:1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한다. 나이제한은 원칙적으로는 35세까지이다. 2011년 현재 224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외국인이 11명(한국인 3명, 필리핀인 1명 포함)이라 한다. 작가를 배출하면 그들은 어디서 일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좋은 환경을 가진 가나자와 시 주변에 거주하며 활동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심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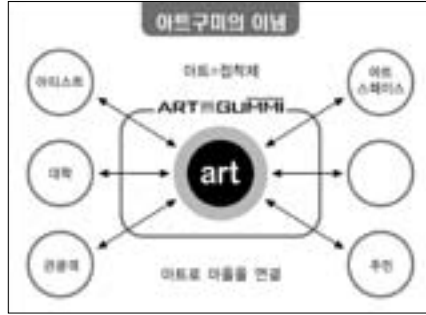
의원으로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연수생을 모집하면 가나자와시가 1인당 10만엔씩 12달동안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다. 작가를 배출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눈물겹다.

아트구미로

아트구미는 [가나자와 마을 만들기 시민연구기구]에서 2006년부터 3년간에 걸쳐 예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를 해온 멤버가 중심

이 되어서 만든 NPO(비영리조직)²³ 법인이다.

2009년 4월 가나자와의 핫코쿠 은행 (北國銀行)의 지원을 받아 3층에 리모델링 후 갤러리를 열고, 이 장소를 거점으로 전람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한다 (심기택).



그들은 형식적인 패턴을 고집하면 균질화되어 창조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나자와 아트 구미’웹을 운영하여 가나자와의 아트스페이스 (art space) 및 전람회를 소개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들은 이 웹을 통하여 그들의 이벤트 정보, 갤러리 정보, 아티스트 정보 등을 세계를 향하여 알리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5월에는 한.일 전통공예 전시전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심기택).²⁴ 여하튼 이들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매력도시를 만들고자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갤러리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공간이 있다. 외부예술인구를 유입시켜 도심을 활성화하고 내부 예술가들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전문가의 작업공간을 아트구미에 옮겨와 보여주니 일반인과 예술이 가까워진다. 지역의 창조적인 인력을 발굴 육성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매우 감동스럽다.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통상 각종 세액감면, 시설지원 등

23 NPO(Non-Profit Org : 비영리조직)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에 초점을 둔 개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으로 정의

24 오산시의 예술가들과 교류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을 통한 유인책을 쓰고 있으나 실상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업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다. 앞으로 기업들은 유능한 인력이 모인 곳에 집적되며, 그러한 고급인력들은 고급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 모이므로 고급인력이 모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관건이 될 것 이라는 어느 칼럼이 생각나는 것은 가나자와시만의 경쟁력에 대한 부러움이 아닌가 싶다 (심기택).²⁵



아트구미에서 설명을 맡아주신 이는 한 교수님이었는데 어찌나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설명하시는지 이 또한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엄청나게 빠빠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앉아서 졸음이 오기도 했는데 통역을 하시는 김준호 교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 우리는 단순 통역이 아닌 최고의 교수 김준호님을 ‘통역’으로 모시고 다니는 행운을 얻었으나 그 분이 너무나 통역을 잘 하는 탓에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없었으니 그 분은 우리의 두 배로 힘들었다고 보면 된다.²⁶

25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심기택 전문위원은 생각이 있는 공무원이다.

26 김준호 교수님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금방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바로 한국사람 앞에서 일본어로 통역하고 일본인 앞에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막 웃으며 ‘교수님 지금 우리 앞에서 일본어하시네요.’ 하면 김교수님이 멋쩍게 웃으며 ‘아, 제가 피곤한가 봐요’ 하는 것이다. 통역은 고도의 정신노동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오미초 재래시장으로

2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으로 유명한 오미초 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들른 곳은 가나자와 고객지원센터였다. 고객지원센터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설명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오미초 시장은 가나자와의 중심에 위치했으나 시장에 접한 국도확장, 시설노후, 하수도 정비, 복잡한 소유권 정리를 위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979년) 공사가 착공된 것은 2007년 3월이라 한다 (심기택). 장장 30년에 걸쳐 건물배치계획과 토지에 대한 권리조정, 재래시장내 상점가 상인들과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에 착공, 2009년에 준공하여 오늘의 오미초 시장관을 개장하게 되었다 (이종수).

‘가나자와의 부엌’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미초 시장은 1721년에 생겨났다.²⁷ 일본의 3대 재래시장의 하나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1일 평균 1만 5천명 정도라고 하니 가나자와시의 인구가 46만 2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종수).

오미초 시장관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4층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 (100여대)과 교류플라자로 구성하고 교류플라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고, 각종 써

27 1721년이라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경종 1년이다.

클활동, 학습회, 다도회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민이 재래시장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시장에는 상점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조합내에는 비전위원회와 판매촉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종수).

박영춘 주무관은 홍보에 관계된 일을 하므로 시장의 홍보활성화 정책, 구체적 마케팅 계획등을 질문했다. 그러자 그들은 비전위원회를 소개했다. 비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운영과 공동택배, 온라인 판매 등 판매부문을 담당한다. 판매촉진위원회에서는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종수).



〈고객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서정욱 계장은 오산시의 상가번영회를 언급하며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가 있냐고 묻는다. 그들은 이곳이 3대 재래시장에 속하고 일본 매스컴에 소개되어 유명하다고 말하며 미각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대답한다. 연간 4-5개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주로 먹을거리 축제가 유명한 모양이었다.



〈최용수의원〉

최용수 의원이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섰을 경우 재래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답은 대책이 없다고 돌아온다. 어디나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은 요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객지원센터에서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조금은 불결하고 무질서하며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오미초 시장에 들어서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없어졌다. 한국의 재래시장은 거리에 좌판을 늘어놓은 노점상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곳은 노점상이 없었다.



〈맨 오른쪽이 이종수계장〉

또한 재래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상가로부터 일정구간을 소방한계선으로 지정하여 선을 긋고 선 밖으로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미초 시장은 소방한계선을 그어놓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저 지적점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점 밖으로 상품을 진열한 가게는 단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다. 새삼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일본의 시민 정신은 일본이 진정한 선진국임을 증명한다 (이종수).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은 크게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혁신 및 교육사업 (시장투어,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지원,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등), 시장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실시하는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나자와 역시 법제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로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종수).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할인점 등으로부터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 ‘큰 점포 입지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되는 점포가 시가지에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여 왔으나 5-6년전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규모 점포 등이 시내에 입점하기 시작하여 시내 상점가 중에서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 이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한다 (이종수).

우리나라는 최근 재래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6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법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명하고 재래시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다 (이종수).

시장은 잘 정돈되어있고 무엇보다 청결하다. 고객들은 노인들이 젊은 이보다 더 자주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이는 한국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시장 안에서 파는 물건은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것까지 있는 듯하다. 한여름이라 고객을 위해 아주 커다란 얼음덩이가 길 중간에 놓여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오미초 시장과 오산 중앙전통시장이 지향하는 목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젊은층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시책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오미초 시장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나자와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장관계자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도심권에 위치한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을 시장 근처로 이전하여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여 고객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미초 시장관은 시장과 2km정도 떨어진 도서관을 시장과 결합하여 공간의 50%이상을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여 젊은층의 시장유입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가나자와의 상점가 조합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법인으로 등록된 상인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장발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시장활성화는 상인들이 주축이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상인회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추진한 프로젝트 중 오미초 시장에 대한 소개가 가능한 시장 지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 내 상사표시와 이름난 맛집



〈낮에 시장을 찾은 노인 고객들〉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는 우리의 전통시장에 당장 접목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실상 오미초 시장과 우리 오산의 중앙전통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화 될 만한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당면사항을 대충 책상머리에서 처리하거나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서둘러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꼼꼼히 따져보고 의논하는 자세가 일상화 되어있다. 머릿속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속담이 계속 맴돌았다.(이종수).²⁸

전통시장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전통시장이 최근의 대형마트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통’을 살려야 한다. 전통시장이



〈강선규계장과 김미정의원〉



〈오미초시장 입구〉

28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의원이 연수를 갈 때 공무원과 함께 가면 정말 좋다는 것과 공무원은 절대 의원이 무시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은 잘 보고 느낀다. 과연 어떤 의원이 이만한 보고서를 쓴단 말인가? 누가 공무원을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가? 오산시 공무원들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대형마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편리함’이다. 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이기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개그프로에서도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다루는 코너가 있어 웃음을 유발하는데…… ‘어디갔어, 이거……’ ㅎㅎ

서커스, 팽이 돌리기, 딱지먹기, 편먹기, 사방치기…… 인사동 거리에 줄지어 있는 전통찻집 거리 등…… 우리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살려서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찾아오는 혁신도시 ‘혁신시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공무원들에게 말하면 상인들이 협조를 안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며 빠져나가는 곳이 ‘중장기 계획’이다. 그 중장기 계획은 창기는 이 없으면 누구나 잊어버리고 안 잊더라도 게을러서 하지 못한다. 우리의 전통시장 사업활성화는 ‘전통’ 찾기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재래시장을 나와 가나자와 시청으로 향한다. 의회를 방문하고 가나자와 공무원들의 PT를 듣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의회가는 교통편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고령자 복지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탄생된 플랫폼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은 참 즐거웠다. 버스기사가 여기는 어디고 무엇이 유명한지를 직접 설명한다. 운전기사는 매우



〈버스기다리며 담배 한 대씩 -
손정환 의원, 최웅수 의원, 서정욱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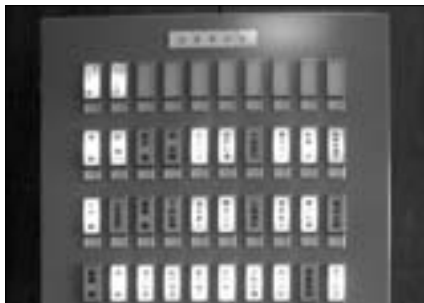
〈버스안에서 -
이수영 과장, 강선규 계장, 김진원 의장〉

친절했다. 이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요금의 반값이다. 골목길을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같이 타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을 설명하시는 것 같았다 (홍휘표).²⁹

가나자와 시청으로

가나자와시청에 도착하여 의회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니 의원들의 명패가 좌악 걸려있다. 한국에서 의원들이 온다고 전해 듣기는 했지만 모두들 바쁘니 우리를 위해 나와 준 가나자와 의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의장님은 꽤 연세드신 신사였다. 가나자와는 우리나라의 전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했다. 유도와 스모, 가라데 등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의장님은 전주 비빔밥을 좋아하고 의장님의 아들은 일본에서 불고기 집을 운영하는데 불고기와 비빔밥을 같이 하는 메뉴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의장님의 사모님은 한류드라마에 폭 빠졌다고 한다. 그는 젊디 젊은



〈가나자와시의회 의장〉

29 기획감사 담당관



〈의장석에 선 김진원 의장〉

우리나라 최연소 의장인 김진원 의장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젊은 의원이 ‘희망’ 아니겠냐고 말한다. 다른 의원들도 오산시의원들의 나이가 젊은 데에 많이 놀라고 있었다. 가나자와시에는 40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엔 8선, 10선의 의원도 있다고 한다. 의장은 6선이고 부의장은 4선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가 있어 시민복지, 교육, 환경, 도시정비 등을 다룬다. 3개의 특별위원회는 1. 신간센 특별위원회 2. 안전대책위원회 3. 에너지 특별위원회이다. 자민당 소속 의원이 13명, 미래당 8명, 청풍 가나자와당 3명, 공산당 3명, 무소속 2명 등이고 지금까지 의장, 부의장은 자민당에서 나왔다고 한다. 각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와 집행부를 연결시켜주니 소통이 잘 된다고 한다.³⁰

가나자와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다음은 가나자와 공무원들에게서 그들의 도시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이었다. 한시간이 넘게 이루어지는 PT는 내용은 좋으나

30 이 부분은 미쿠니 교수도 여러번 강조한 부분이다.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른다. 점심을 먹고 난 후라 모두들 졸려 죽겠는데 공무원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끝없이 지루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³¹ 사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나온 각각의 장소에서 들은 똑같은 말이었으니 어찌보면 이들은 소통이 잘되고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견학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PT자료가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³²



다른 장소에서 듣지 못한 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나자와시에서는 주로 고령자가 도시의 중심지에 살게 되고 젊은이는 교외로 나가 산다. 고령자들이 사망하여 빈 집이 생기면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떠난 시민을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신칸센, 공항, 가나자와항, 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정비에 힘쓰고 있다. 현재 가나자와에서 도쿄까지 4시간이 걸리나 2시간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통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력은 역사가 만들어 놓은 유형문화재라고 생각한다. 보존은 발전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존을 위해 조례를 만

31 왼쪽에 앉은 김진원 의장이 너무 졸려서 큰 일이라고 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두가 졸음을 참느라 죽을 지경인 것 같았다. 더운 날씨에 피곤하니 잠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만이 '甦甦' 했는데 '감사'를 해야하니 그런게 아닌가 싶었다. ㅎㅎ

32 그러나 오산시의회가 제작하는 이 보고서는 앞으로 가나자와를 방문할 타지자체의 예습용으로 유용할 것이다.



〈줄지 않는 홍취표 기획감사담당관〉

들고 문화재로 지정 보존한다. 조례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예로 ‘경관조례’를 보자. 이미 1968년에 전통환경보존조례를 만들었다. 1989년에는 경관조례를 만들었는데 건물의 높이는 너무 낮아도 높아도 안 된다든지, 새로운 경관구역에는 너무 낮은 건물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용수

보존조례를 보자. 이 지역에는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55개의 용수가 있다. 1996년에 21개 용수를 보전용수로 지정했다. 용수로 옆에 붙어있는 집도 많다. 최용수 의원은 용수보존조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답은 에도시대때부터 논, 밭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라 오수 등이 들어 올 곳이 없다는 것이었으니 질문을 잘 못 알아 들은 것인지……

어쨌든 그들은 2009년에 가나자와가 세계창의도시포럼에서 공예로 창조도시로 뽑혔다는 자랑을 하며 문화가 도시의 매력을 끌어낸다고 강조한다.³³ 우리가 특별히 인상깊게 들었던 대목은 가나자와는 독자기술을 배경으로 한 기계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예를 들면 병 씻는 기술 등이다. 이렇듯 작지만 특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나자와의 또다른 경쟁력이다.



〈홍취표 담당관, 서정욱 계장, 박영춘 주무관〉

그 외 특기할 사항은 가나자와가 학생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일본 최초

33 가나자와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의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학생이 마을의 주인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발상자체가 상큼하다. 그들은 초중고생,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시민과 학생들은 서로 교류하고 학생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대학의 재학생, 유학생들에게 25개 역사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쇼핑, 식사등도 10%씩 내려준다고 한다.

여기서 서정욱 계장의 글을 인용한다.³⁴

- 가나자와시, ‘학생 마을 만들기’와 ‘일본의 CB’ -

서정욱 계장

내가 금년 2월에 지역경제과 고용정책담당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처음 접한 것은 너무나도 생소했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었다. 처음에는 걱정반 기대반으로 일을 추진하였는데 다행히도 시장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의 역점시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지난 4월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마을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을 방문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나는 가나자와시의 정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대하며 가나자와를 방문하게 되었다.

34 서정욱 계장은 가나자와 공무원이 설명을 할 때 분명 줄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담당인 CB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 줄고 있었냐는 듯 몇들어진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공무원이다.

가나자와시는 문화·예술정책을 시민중심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나자와시에서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는 “학생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여 본다.

가나자와시에서는 작년에 학생의 힘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관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가나자와시에는 18개의 단과 대학과 31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3번째의 규모이다. 이시카와현에 3만7천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는 일본 7위의 규모이고 외국 유학생도 1,5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고급 인적자원을 시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던 중 학생과 시민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추진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이 조례는 학생과 시민이 마을 발전을 위해 서로 교류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주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었다.

조례 제정의 목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을중심에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 둘째,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이 지자체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셋째는 마을 주민 전체가 학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학생을 길러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학생이 자주적으로 활동하게끔 유도하며 학생과 주민 그리고 시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마을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협동마을만들기 챌린지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창조적, 자주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기획하고 시는 그 기획안을 공개 모집을 통해 채택하는 것이다. 채택된 학생에게는 10만엔을 지원하여 그 학생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2년째 6개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³⁵⁾

가나자와시에서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중요시 하

35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학생참여 사업이 있다.

고 있다 “외부사람” “젊은사람” “엉뚱한사람”이 바로 그것이다.³⁶ 이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시를 변화시키고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사람은 지역주민과 다른 견해로 마을을 관망할 수 있고³⁷, 젊은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창조적인 감성을 갖고 있고, 엉뚱한 사람은 기존의 상식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³⁸

이렇듯 가나자와시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리더가 되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창조도시에 걸맞는 활기찬 마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CB와 한국의 CB에 대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비교표 : 서정옥계장〉

분 류	일본의 CB	한국의 CB
목적	지역의 과제 해결 중심 (과업중심)	수익창출, 고용창출 (가시적 성과중심)
주체(리더)	문제의식을 가진 리더	전통적 리더 (리더의 고착화)
주도성	지역주민 주도	행정주도
동력 창출	스스로의 학습	리더 및 행정에 의존
사업 내용	생활권에 기초한 다양한 영역(재화, 서비스)제공	재화의 가공 및 공급 집중
재원	주민출자	주민출자, 보조금에 의존
행정의 역할	파트너	강력한 지원자

36 참으로 재미있지 않은가?

37 외부인을 터부시하는 우리와는 다른 시각이다.

38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서정옥 계장은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기억에 없으니 이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공무원인 서계장의 명석함에 놀란다.

39 이 도표는 어디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와 연수 중 들은 내용을 토대로 서정옥계장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남의 것을 인용만 하기도 힘든 마당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서정옥계장의 창의력에 박수를 보낸다.

비교표로 알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CB 정책은 능동적이나, 수동적이나의 구분이 명확하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한국에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과 명확히 비교되는 점이다. 아마도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시도 일본 가나자와시의 전국최초의 ‘학생 마을만들기 조례’와 같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오산시는 타 지자체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점심먹으러 가서

우리는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더운데 가나자와 시청에서 재미없는 공무원의 설명을 한참 듣고 난 후⁴⁰ 식사 장소로 슬슬 걸어갔다. 오밀조밀 좁은 골목길을 10분 쯤 걸으니 일본 전통 식당이 나타난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 견학의 숙제를 가지고 온 지역경제과의 서정욱 계장이 불멘 소리를 한다. 사회적 기업에 관해 뭔가 공부해 가야하는데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광상욱 시장님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지대하기에 아마 서계장의 걱정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번 연수는 공무원과 의원의 합동 연수이다. 공무원은 모두 전문분

40 공무원보고 재미없다고 하는 표현을 공무원들은 이해해 주시라…… 공무원은 어느 나라나 재미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이 쓴 보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재미없어 못 읽는다. 그래서 공무원이 쓴 보고서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양념을 붙여 ‘읽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ㅋㅋ

야의 숙제를 안고 왔다. 의원들은 보통 필수적인 숙제를 안고 오지는 않는다.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난다. 공무원들의 보고서를 정리하며 드는 생각은 그들은 자기들의 숙제만큼은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확실하게 숙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며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연수 때마다 언론에 얻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니 언론은 관광지를 들먹이며 늘 연수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공부하고 떠나는 연수, 현장에서 열심히 확인하는 연수, 다녀와서 정리하는 연수는 진실로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에나가 관광지를 찾는 것은 주변지식을 얻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관광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연수가서 숙제에 대한 부담을 심하게 갖는 것도 올바른 연수는 아니라는 느낌이다. 서정욱 계장처럼 숙제의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는 편하게 다른 것을 둘러보는 것이 할 일이다. 주변 지식이 많아야 나중에 그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숙제 못해 온 공무원을 놀고 왔다고 간주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우리가 가장 부러웠던 곳은 바로 이 시민예술촌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에 시민들의 예술적 자유가 넘친다. 1993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방적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가나자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취득했다. 이곳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이 일어나는 자유로운 캠퍼스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창작작품을 전시한다. 가나자와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자주적 운영을 존중하여



쓰레기와 화재문제가 아니라면 개입하지 않는다. 1년 365일 24시간 내 내 개방되어 있다.

희극강좌, 연극인 대상 기초강좌, 미래 연극인 육성사업 등을 하는 드라마 공방이 있고, 재즈교류, 음악발신 네트워크 사업, 음악 초심자 양성을 하는 뮤직 공방이 있다. 물론 미술관련 대규모 시민예술이 일어난다.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공방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다. 드라마 공방은 넓은 사각의 공간과 중간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석도 무대도 없으며 평대를 사용하여 객석과 무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우리 오산시도 시민예술극단이나 예총의 연극인협회가 이런 연습공간에서 연습하고 공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전시 중인 시민들의 작품과 작가들의 작품〉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수상 스테이지와 계단형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 앞쪽에 연못이 배치된 개방적인 스페이스는 누구나 마음이 온화해지는 장소였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시민들은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문화예술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야마데 前시장의 신념에 기초하여 다이쇼(大正)시대에서 쇼와 초기에 세워진 빨간 벽돌의 창고건물을 재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쇠퇴한 지역을 시민예술촌으로 재생하여 창작활동의 거점으로 삼는 그들의 기민함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과연 효율성과 단기적인 경제적 논리에 눌러 철거된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아쉬운가? 우리는 얼마나 시민이나 예술인들의 ‘놀터’에 배려를 하고 있는가? (심기택)

이 시민예술촌도 ‘돈 먹는 하마’가 분명한데 시정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을테니 참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수영 의사과장님은 계속 독백하신다. ‘이거 정말 부럽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끝없이 펼쳐진 탁 트인 공간! 보기만 해도 숨통이 트인다. 새파란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고색창연한 건물 안에서는 시민들이 작품과 호흡하며 예술적 열정을 불태운다. 저 힘으로 일상을 살고 그 일상은 향기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시민은 아름다운 시의 자산이다. 그러니 어찌 부럽지 않겠는가……

가나자와 장인대학교로

일본의 장인정신은 매우 유명하다.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그들의 정신은 고귀하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데에 노력을 해야만 하는 모양이다. 가나자와 장인학교는 고도의 장인기술을 계승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나자와시와 9개의 단체가 공동출연하여 1996년에 설립하였다고 한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 석공, 기와, 미장, 조경, 대공, 다다미, 창호, 판금, 표구 등을 연수시킨다. 정원은 50명인데 3년간 배운다고 한다. 학비는 무료이다.

장인대학을 안내하는 이는 한 노인이었는데 이 분 또한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일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안내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뜻이니 그것이 국력아니겠는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설명해 주시던 노인은 떠나는 우리가 아쉬운 모양이었다.

가나자와의 마지막 저녁

미쿠니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술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안내한다. 그 작은 식당의 3층이 우리가 3시간동안 담소를 나누며 식사한 장소였다. 맥주는 무한대로 리필이 가능한 식당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술에 ‘웬수’가 졌다고 그렇게 무한대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안내받는단 말인가……

이번 연수에서는 우리 의회의 최현실 주사가 통역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오산시는 최현실 주사에게 일본어 강좌를 열어주고 이렇게 돈도 안 들이고 통역으로 써먹었으니 본전(?)을 뺀 셈이다. ㅎㅎ⁴¹ 김준호 교수님 혼자 비공식적인 자리까지 통역을 맡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최현실 주사는 그간 배운 일본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주고 받았다. 이쪽에서는 일본어로, 저쪽에서는 영어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최현실주사〉

홍희표 기획감사담당관은 미쿠니 교수에게 노인이 많은 일본의 인구

41 나중에 최현실주사를 가르친 일본어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최현실주사가 일본어 통역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피라미드에 대해 걱정스런 질문을 했으나 그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아이는 어른에게 배우고 어른은 늘 현명하게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니 노인이 많은 인구 피라미드는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는 간디의 말을 예로 들며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비전없는 정치’라고 했다. 우리는 이 말에 무척 감동했다. ‘비전없는 정치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늘 시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 아닌가?

가나자와의 아침 풍경

호텔의 조식을 하루쯤은 빼먹고 가나자와의 스타벅스를 찾아보았다. 아침 일찍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은 24시간 편의점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책을 보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평균 두 권의 책을 사 본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독서를 한다. 아침부터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는 풍경보다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이 더 흔하다니 이것은 정말 쇼킹한 일이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스타벅스 매장이 눈에 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스타벅스를 찾아보는데 특히 카페라떼의 맛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것은 우유의 맛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가나자와의 스타벅스에서는 와이파이가 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연결이 매우 힘들었다. 결국 인터넷연결을 하지 못했다.



〈가나자와의 스타벅스 내부〉



〈아침부터 서서 뭔가를 읽고있는 시민들〉

한국으로

이제 우리는 소나기처럼 퍼부었던 일정을 마치고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외국에 나왔는데 쇼핑할 시간도 한번 주지 않는지 섭섭했다. 뭐라도 좀 사가고 싶어 어디 좀 들르자고 하니 적당한 물에 내려준다. 우리는 슈퍼에서 쇼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은 물이라서 그랬는지 살 물건이 별로 없었다.



나와 보니 모두들 물건은 사지 않고 벌써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결국 이번 연수는 공부만 ‘찐’하게 하고 돌아가는 코스가 되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연수소감을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이수영 의사과장님의 솔직한 고백이다. 과장님 왈, ‘나는 지금까지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폈으나 여기 사람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것이다. 이 고백이야 말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배워야 할 점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수영 과장〉

노력해야한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며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가나자와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치지 않고 밀고 나간 시장들이 있었다. 시장 하나의 힘으로 오늘의 창조도시 가나자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짓일 것이다. 즉 두 번째, 그 뒤에 시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른 수준 높은 시민들이 있었다. 이 둘이 힘을 합쳐 오늘의 가나자와를 이룬 것이다. 유럽의 통합을 이끈 것도 교양시민들의 커뮤니티이다. 가나자와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밑에서 시의 행정에 협력하는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면 공무원들은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한다. 그러니 화려하지도 않고 국가의 지원을 특별히 많이 받지도 않는 가나자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는 논리적으로 특별한 점은 아니다. 지도자와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정책은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통에 매우 서툴다. 빼그덕 거리는 정책을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밀고 나가다 실패하기도 하고 전임 시장이 강력히 밀고 나가던 정책을 신임 시장이 현신짝 버리듯 팽개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나자와는 신임시장이 전임시장의 주력사업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완성시켰다. 가나자와의 시민은 자기들이 뽑은 시장들을 존중해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 주었다.

유와쿠 창작의 숲은 이러저런 사업을 실패해가며 정착한 예술촌의 일

중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크고 어려웠겠는가?

전통도시 가나자와에 최첨단 미술관을 세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제시하는 시장에게 시민들은 많은 항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합의를 이끌어 냈고 결국 최고의 미술관으로 가나자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오미초 재래시장은 30년에 걸쳐 구상하고 다듬어 일본의 3대 재래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실현성이 있든 말든 외부차량유입을 규제하면서까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그들의 창의성은 높이 살만하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장인 정신은 당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이 최첨단 시대에 아날로그의 향기를 지니는 그들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1년 365일 하루 종일 열려있는 시민예술촌은 문화의 향기를 지닌 시민을 배출하고 그 문화의 향기는 일상의 활력소가 될 것이니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함께 숨쉬는 가나자와! 시의 행정력과 시민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곳 가나자와! 수입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돈을 써가며 자기들의 문화를 자랑하는 자원봉사자!

가나자와는 올바른 공무원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매일 다시 태어난다.

청결함과 고즈넉함과 오래된 동양의 숨결과 현대의 활기참이 살아있는 곳, 가나자와!

우리는 많이 배우고 느꼈다. 이 경험은 오산시에 그대로 체화된다. 당장 부산동의 허물어져가는 기와집과 굴뚝을 보존하고 올레길 둘레길을 만들며 생태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짐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의원들이여!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한 그대 주저없이 떠나라!





2011년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가나자와를 가다

2011년 7월 17일 ~ 7월 20일